한 달새 13兆 증발… 가입자 할퀸 변액보험의 변심

증시폭락에 13조2181억 빠져나가
해지하면 손실 커 가입자 진퇴양난
업계 "회복되길 기다리는 수 밖에"

'양적완화'선언에도 하락한 코스피 /연합뉴스

#. 3년째 변액종신보험에 매달 67만원씩 넣고 있는 김민희(34)씨. 종신보험은 하나쯤 있어야 하고 빨리 들수록 유리하다는 얘기에 박씨는 수익률이 높다고 추천받은 한 생명보험사의 변액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최근 증시가 급락하면서 보험 해지를 고민 중이다. 가입할 당시에는 장이 좋아 수익률이 괜찮았지만 장이 급격히 안 좋아지자 수익률도 덩달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변액보험 수익률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 때문에 변액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액보험은 중도 해지 시 손실이 큰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국내 변액보험 순자산은 91조5224억원으로 지난달 23일(104조7405억원)보다 13조2181억원이 빠졌다. 코로나19로 국내외 증시가 폭락하자 한 달 새 13조원 넘게 증발한 것.

코로나19로 지난 한 달 동안 주식시장은 요동쳤다. 코스피시장에서 지난 19일 주가 급락에 따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 20일에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호재로 주가가 급등하자 반대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23일 오전에는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주가 급락에 따른 매도 사이드카가 또 다시 발동됐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투자 성과를 보험금에 반영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변액보험에 가입하면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주식 비중이 많은 '주식형'과 채권 비중이 많은 '채권형', 주식과 채권을 섞은 '혼합형'으로 나뉜다.

특히 국내 변액보험 상품의 절반 가까이는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투자되고 있어 주가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래서 변액보험은 주가와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률이 높아지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낮아지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다.

문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 계속 보유하자니 수익률은 하락하고 있고, 해지하자니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변액보험 만기가 될 때까지 기초자산 가격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가입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별로 없다.

변액보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액종신보험(보장성보험)과 변액연금보험(저축성보험) 대부분 최저보증기능이 탑재돼 있어 투자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률이 낮게 책정돼 원금손실이 크고 최저보증도 적용되지 않는다.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하고, 해지 시에는 해지공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변액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비 손실이 큰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상품"이라며 "지금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장이 회복되면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코로나發 IPO시장 '칼바람' 줄줄이 철회… 이달만 7곳

기업 가치 적절히 평가 받기 어려워
상장은 물론 해외기업설명회도 취소
대어급도 불투명…시장 위축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상장을 준비하던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철회를 결정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기업설명회(IR)도 잇따라 취소되면서 대어급 기업의 IPO도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IPO 시장의 전반적인 부진이 예상된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기업공개 철회신고서를 낸 기업은 센코어테크, 메타넷엠플랫폼, LS이브이코리아, 에스씨엠생명과학, 노브메타파마 등 5개사다.

최근 1년 동안 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이 11개라는 점에서 3월에만 5개 기업이 철회신고서를 낸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증시 급락으로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이 철회 사유로 꼽힌다.

또 화장품소재 전문기업 엔에프씨가 지난 19일 공모주 청약 중 상장 철회를 결정했고, 신약 개발업체인 압타머사이언스도 상장을 미룰 계획을 밝히는 등 코로나19로 상장 절차를 중단한 기업은 총 7개사로 집계된다.

먼저 코넥스 상장사 노브메타파마는 첫 코스닥 패스트트랙 이전 상장기업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상장 시점을 미뤘다. 이번 수요예측에서 적정한 가격을 받지 못한 탓이다.

공모를 철회한 기업 중 가장 공모 규모가 컸던 LS EV(이브이)코리아 역시 "최근 주식시장 급락 등에 따라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잔여 일정을 취소했다"고 철회 사유를 공시했다.

특히 엔에프씨의 경우 IR과 수요예측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청약에 나섰지만 청약 2일 차였던 지난 19일 장중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동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장이 급락하면서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이날 투자 불안심리가 확대되면서 청약 납입이 취소되는 등 혼란을 겪었다.

통상 IPO를 진행하는 기업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심사 승인을 받고 6개월 안에 상장해야 한다. 만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기업 평가부터 공모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의 부담은 두 배가 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코로나19로 상장에 차질을 빚는 기업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한국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IPO 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거래소는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IPO를 완주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이 상장을 위한 효력기간 연장을 요구하면 근거를 검토해서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위기인 만큼 기업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장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대어급 기업도 많다. 최근 코로나19, 유가 급락, 달러 강세 등 삼중고를 겪고있는 현대오일뱅크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만큼 연내 상장은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바이오 업계 IPO 최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팜 역시 증권신고서 제출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상반기 상장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설명회가 올스톱되면서 해외 IR이 필수인 대어급 기업은 연내 상장이 불투명해졌다"면서 "올해 상반기 IPO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손엄지 기자 sonumji301@